



주 제:	“나의 주님”	“연중 제 24 주일”	2009년 9월 13일
복음 묵상:	[마르 8,27-35]	[이사 50,5-9 가]	[야고 2,14-18]

우리는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늘 이중성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주저함이 없이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스승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예고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머리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믿으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을 달리 나타내는 이중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결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만을 섬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며 증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십시오으로써 인간을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있어 오로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인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주님께는 유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유일하신 주님께만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족과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 최종운 신부님 강론 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알림: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청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주님, 당신처럼 무한히 용서하기가 제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용서해야 할 때마다 부질없는 감정과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꺾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 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1분 명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데이비드 케슬러의 '인생수업' 중에서--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미술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관계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행동과 비뚤어진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깨뜨려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역시 용서받음으로
자신의 잘못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람을 품는
긍정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새벽 종소리 중에서 -

오늘의 말씀 사탕: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